

원방테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1인용 음압병실 개발

- ▶ 컨테이너 형태의 이동식 음압병실 및 실내 음압기기 라인업 구축으로 사업 본격화
- ▶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따른 병동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

[2020-12-21] 클린룸 선도주자 원방테크가 음압병실 부족 해결사로 나섰다.

글로벌 클린룸 리딩 컴퍼니 원방테크(053080,각자 대표이사 구자겸, 김규범)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1인용 음압병실을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대량 발생에 따른 음압격리병실이 전국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클린룸 기술역량을 컨테이너 형태의 이동식 음압병실로 개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 결과다.

실제로 원방테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분야에 적용되는 클린룸 토탈 솔루션전문기업으로 설립 이후 31여년간의 오랜 업력과 압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클린룸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해 오고 있다.

원방테크의 1인용 음압병실 개발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검체 채취 및 병상용 음압병동이 부족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함이며, 환자 격리 및 치료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회사측 관계자는 “당사가 개발한 음압병실은 병실 내 핵심 설비인 이동형 음압기기, 클린 부스, 클린 파티션 개발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풀 라인업으로 구성됐다” 며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에 대한 용균 작용을 갖는 효소 HEPA Filter를 적용해 실내 또는 환자로부터 발생하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정화하는데 탁월한 기능을 갖췄다” 고 강조했다.

특히, 이동형 음압기기의 경우, 차압 센서와 내장된 팬의 RPM 제어를 통해 다양한 환경에서도 설정된 차압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 병실은 물론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돼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따른 병동 수요 증가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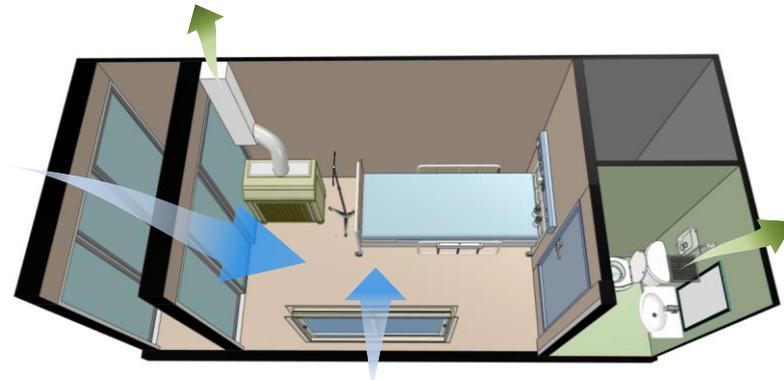
원방테크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병상 부족으로 대기 중인 중증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이라며 “이에 원방테크는 이번에 개발한 음압병실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 등에 공급함으로써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원방테크는 지속적인 음압병실 고도화로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따른 병동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1인형 음압병실



이동식 음압병동 및 음압기기 개요



실내 음압을 형성하여 외부공기 지속적 유입

컨테이너를 활용하여 모듈 Type으로 제작(공기단축)

이동형 음압기기를 이용하여 오염원 및 공기를 흡입

병실 확장 및 변경이 용이함